

“미주 한인교회, 미국 부흥 위한 제2의 청교도로 일어나야”

오는 11월 16일(월)~21일(토)

청교도 신앙 회복 위한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집회 개최
 모든 교회가 개교회 부흥회로 이용할 수 있어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반드시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기념해 미주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청교도 신앙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집회가 JAMA와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대표 한기홍 목사) 주관으로 열린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이사야 60:1)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매일 새벽 5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두 차례 진행되는 대각성 집회는 미주 전역에서 12명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청교도의 신앙과 삶을 소개하고 미국의 청교도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대각성 집회는 유튜브를 통해 각 교회 혹은 개인별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흥회가 진행되는 6일 동안 유튜브에서 ‘청교도 400주년 기념 온라인 부흥회’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자마 대표이자 청교도 400주년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는 “초기 한국에 오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었고 그분들을 통해 청교도적 신앙을 전달 받았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선교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이제 미국에 영향을 미칠 만큼 성장했고 뿌리를 내린 미주 한인교회가 미국의 부흥을 위한 제2의 청교도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부터 영적 대각성 온라인 부흥회 강사로 나서는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뉴욕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달라스 연합감리교회 이성철 목사, 휴스턴 한인중앙장로교회 이재호 목사, 시카고 레익뷰언약교회 강민수 목사, 북가주 뉴라이프교회 위성교 목사, 필라 안디옥교회 호성기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뉴저지 필그림교회 양춘길 목사, 달라스 세미한교회 이은상 목사, 자마 김춘근 교수, 시애틀 형제교회 권 준 목사 ©기독일보

강 목사는 또 “우연 같지만 1620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이 대서양을 건너 플리머스에 도착했었는데, 1903년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건너 호놀룰루항에 도착한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의 수가 정확히 102명이었다”며 “하나님께서

제2의 청교도로, 무너져가는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한인들을 미국에 보내신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고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큰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소원한

다”며 “코로나로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많은 도시의 교회협의회와 목회자협의회가 주체 단체가 되어 소속 도시의 교회들이 영상부흥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의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김동욱 기자

“2020 온라인 밀알의 밤, 하나님 사랑 세계 곳곳에 전해요”



한동대 이지선 교수, ©이지선 SNS

매년 가을 ‘밀알의 밤’을 개최해 장애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온라인 생중계로 2020 밀알의 밤을 개최한다.

추수감사절인 11월 26일(목) 저녁 8시부터 9시(미 서부시간)까지 진행되는 올해 ‘밀알의 밤’은 “감사함으로(Give Thanks, 시편 136 편)”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과 기쁨의 찬양을 담은 어느 해보다 은혜롭고 감동적인 콘텐츠로 전 세계 네티즌들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올해 ‘밀알의 밤’ 주 강사로는 이 지선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나서 전신화상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할 예정이다. <지선아 사랑해>, <오늘도 행복합니다>의 저자 이지

선 교수는 이날 감사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전한다.

매년 밀알의밤에서 아름다운 공연으로 감동을 더해주었던 남가주 밀알 수어찬양팀의 수어 공연이 올해도 이어진다. 현장에서 찬양을 드릴 수 없지만 오히려 온라인 집회의 장점을 살려 청각장애인들의 언어인 수어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한다.

또 이종희 단장이 직접 장애인 학생 가정을 방문해 이들이 공부하는 환경과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장학금을 전달하는 형식의 미니 다큐를 제작해 밀알의 밤의 취지와 목적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종희 단장은 “기존의 밀알의 밤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는 형식이였다면, 올해 밀알의 밤은 저자가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남가주 지역 몇몇 교회에서만 개최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없었지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넘어 밀알의 밤의 취지와 목적, 아름다운 간증과 공연을 세계 곳곳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단장은 이어 “우리의 삶이 비록 코로나19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2020 온라인 밀알의 밤에서 울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의 고백을

통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온몸 가득 느껴보시기 바란다”며 기도와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미주 장애인 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 선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만3200백 달러의 장학기금을 지급했으며, 지난해까지 지급 금액은 238만7천 달러에 달한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월~금: 8AM~6PM, 토 8AM~4PM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이 땅을 고치소서, 치유하소서!”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개최

“미국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총기사고, 마약과 알코올을 남용, 도박 중독, 낙태, 성범죄가 넘쳐나고 약탈과 방화까지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질서가 흔들리며 공립학교에서는 창조질서에서 어긋나는 성교육으로 등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키고 윤리교육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을 높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미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다민족연합기도회에서 남가주 한인 성도들은 미국의 지도자들과 코로나 종식, 미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부르짖었다.

10월 16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다민족연합기도회는 100명으로 제한된 현장 기도회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선출’ 및 ‘성경적 가치관의 회복’, ‘코로나19 종식’, ‘미국과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2020 다민족 연합 기도회에 참석한 한인 성도들은 미국과 캘리포니아의 영적 부흥과 대각성을 위해 부르짖었다. ©유튜브 캡처

기도했다.

기도회는 이성우 목사(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공동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미기총 회장 민승기 목사가 대표 기도했으며 남가주 한인 여성목사회 회장 이명희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한기홍 목사가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이사야 38:5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영적인 침체와 경

제적 침체, 사회적 부작용 등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기도 밖에 해답이 없다”며 “하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간구할 때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어 “특별히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도자 선출은 미국을

성경적으로 세워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투표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도회를 준비한 강순영 목사(자마 대표) 역시 대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선거는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혹은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미국이 성경적 토대 위에 세워져 선교를 이끌어가고, 미국의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다민족기도회는 ‘회개’와 ‘부흥’,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어졌다. 김춘근 교수가 △회개와 코로나19 종식,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기도를 통한 미국의 부흥과 회복, 국가 기도의 날 부회장 디온 엘모어(Dion Elmore) 목사가 △국가 지도자들과 선거, 아주사스트랏미션 프레드 베리 목사가 △인종화합, 저스티스 파운데이션 알렌 파커(Allen Parker) 목사가 △낙태금지과 태아 생명보호,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가 △청교도 신앙회복과 한국교회를 위한 메시지와 함께 기도를 인도했다.

한편 2011년 11월 11일 파사데나 로즈볼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다민족기도회는 2014년부터는 남가주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도회를 이끌어왔다.

김동욱 기자

제5회 남가주 신학대 연합 설교 페스티벌, 미주장신대 조재현 전도사 대상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주관한 제5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에서 미주장신대 조재현 전도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4일,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개최된 설교 페스티벌에는 연방 정부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준된 8개 남가주 한인신학대학교에서 각 1명씩 8명의 학생이 참가했으며 “시련과 변혁기의 신앙적 자세”라는 주제로 한인 이민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설교 페스티벌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설교자들이 영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 급변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주최측의 개방적 시도가 돋보였다.

대상을 수상한 조재현 전도사는 “고난과 시련에 숨겨진 소망”(시편



제5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참가 신학대학 교수들과 참가자 단체사진

66:10-12)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인도하셨다”며 “고난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날 최우수상은 강훈 전도사(국제개혁대학교), 주해상은 노스데반 전도사(에벤겔리안복음대학교), 전달상 신지혜 전도사(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수상했으며, 서민선 전도

사(미성대학교), 김진호 전도사(월드미션대학교), 조운구 전도사(베데스대대학교), 김선미 전도사(헨리아펠렐리신학대학교)는 일반 장학금상을 받았다.

설교 심사는 설교의 전달력과 열정, 정확한 본문 해설, 설교 구성과 시간, 상황 해석 등으로 이뤄졌으며 9명의 심사위원과 18명의 청중 평가단에 의해 이뤄졌다.

심사평을 전한 월드미션대학교 남종성 교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라며 “수천년전의 하나님 말씀이 오늘의 언어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되고, 성도들이 중생과 성화의 과정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교 페스티벌을 주최한 성시화 운동본부 송정명 목사는 “목회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설교 훈련의 과정을 꼭 밟아야 한다”며 “폭넓은 학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설교 훈련을 받는 신학생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자신을 개발하는 귀한 학습의 현상이 되었기 바란다”고 전했다.

성시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라며 “팬데믹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페스티벌에 앞서 진행된 앞서 진행된 예배는 윤인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의 사회로 송정명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동양선교교회가 김지훈 목사 “삼손과 들릴라”(사사기 16장 17절-20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임성진 총장(월드미션대학교)이 축도했다.

한편 연합 설교 페스티벌은 남가주 지역 신학대의 연합과 한인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리더 육성을 도모하고, 건전한 설교 문화 정착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목적으로 매년 열고 있다.

김동욱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적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 찾아오시는 길
W Commonwealth Ave
S Brookings Rd
W Valencia Dr

Grace Mission University

ATS정회원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CHEA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학위과정	■ 교차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 선교학 박사 (D.Miss)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 신학사 (BA) ■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혜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 English Track, LA Extension (3020 Wilshire BL) ■ 유학생 I-20 발급 ■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Pell Grant)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Cal Grant) ■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 강의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12월 입학허가시 \$300불)

이벤트 2 화상입학설명회

- 일시 및 시간 : 10월 29일(목) 오후 4시
- 학교 홈페이지의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 (gm.edu/online)
- Zoom Interview : 726-399-1642 / pw: 2020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입학 문의 : 714-525-0088(대표)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주최 11월 17일(화) 새생명비전교회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개인 라이프 스타일, 교육 환경, 기업 환경, 사회 생태계, 세계 무역 구도는 물론 문화와 종교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계 질서를 빠르게 재편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는 물론 교회 및 선교 현장의 변화를 전망할 것입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회장 송정명 목사)는 오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공개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은 미주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전문가들이 12가지 소주제를 통해 코로나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새생명비전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될 공개 포럼을 소개했다. ©기독일보

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갈 방향을 점검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인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도 있을 예정이라 눈길을 끈다. 각 분야 발제자의 논문은 한데 모아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주최측은 현장 참석(예약)과 함께 CTS 아메리카를 통한 TV중계,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국경과 장소의 제약을 넘어 누구나 포럼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는 새생명비전교회 웹사이트(www.nlvc.org)에 접속해 “온라인예배”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

서 “새생명비전교회” 혹은 “New Life Vision Church”를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다. 운영위원장으로 포럼 준비를 총괄하는 이상명 총장은 “우리는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팬데믹 과정을 겪고 있으며, 팬데믹을 통과한 이후에도 예상하지 못하는 도전과 위기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가

고민해야 할 주제를 가지고 교단과 교파를 넘어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상명 총장은 이어 “포럼에서 소개될 논문은 학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담았고, 실제적 예시와 구체적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력을 높였다”며 “이번 포럼의 원고는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도움이 될만한 성숙하고 수준 높은 논문으로 출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종기 목사는 “반복되는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의 초대교회는 서기 150년 0.07%에서 350년에는 52.9%로 증가됐다”며 “참으로 역사적이고 심각한 도전 앞에 ‘교회는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 448-3493 김동욱 기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청교도 400주년 기념 웨비나 개최

2020년 청교도 이민 400주년 기념 웨비나

미국 청교도 개역 신앙의 이민 목회 사역 적용

11월 9일(월) 오후 8시(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미국 서부 시간)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던 교회

조 영천 목사 (미국, 아틀란타 새교회 담임)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D 교회사) 저서: Anthony Tuckney: Theologian of the Westminster Assembly (Reformation Heritage Books,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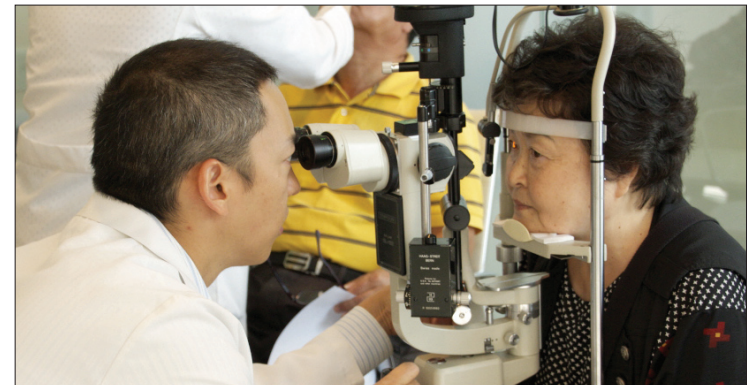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목사) 총회 교육부(교육부장 조응철 목사)는 2020년 청교도 이민 4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청교도 개역 신앙의 이민 목회 사역 적용”이라는 주제로 오늘 9일(월)과 10(화) 오후 8시(미국 동부 시간), 오후 5시(미국 서부 시간)에 고투미팅(gotomeeting)으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첫째 날, 아틀란타 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영천 목사가 “뉴잉글랜드 청교도가 꿈꾸던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고, 둘째 날 10일에는 남 광주 벨살롬교회 김형익 목사 “청교도의 유산과 21세기의 목회적 적용: 설교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한다.

주최측은 “이번 웨비나는 현재까지 200여 명이 등록할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웨비나 등록 문의는 총회 교육부 서기 김성일 목사 (760)220-3263, 카카오톡 jesumind 으로 하면 된다. 김동욱 기자

비전케어서비스 서부지부, 팬데믹에도 무료 백내장 수술 지원

경제적 어려움 겪는 한인 및 타인종 대상

비전케어서비스 서부지부(이사장 고정원 이하 VCS)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힘든한인들을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진행했던 사랑의 아이캠프를 버추얼 캠프로변경하고 무료 백내장 검사와 수술을 제공한다. VCS는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 중에 눈이 아파도 검사를 받지못하는 케이스가 생겨나지 않도록 무료 눈검사를 제공하고, 검진결과 백내장 질환이 발견되는 저소득층 환자들은 무료로 수술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 VCS미주서부 고정원 이사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4 월과 9 월에 예정됐던LA 사랑의 아이캠프 행사를 연기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필요한 한인들을 찾아무료 검진과 수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LA 아이캠프를 버추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어 “그동안 한인



비전케어서비스가 무료 눈 검사를 실시하는 모습 ©비전케어서비스 제공

들 위주로 도움을 제공했지만 우리 이웃인 타인종들에게도도움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본다면 추천해 달라”고덧붙였다. 버추얼 LA 사랑의 캠프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 대상자는 저소득층 또는 무보험자로 체류 신분 에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버추얼 LA 사랑의 캠프를 신청하는 한인은 먼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미리 확인받게 된다. 이후 안과 전문의를 연결해 직접

안과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검진 시간을 예약하고 검진 결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무료로 수술을 제공한다. 한편 비전케어 서부지부는 지난 2012 년부터 LA 총영사관과 오픈뱅크의 후원으로한인타운에서 매년 두 차례씩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열어 무료 안검사 및 백내장수술을 진행해 왔다. 그동안 도움을 받은 한인들은 외래진료에만 800여 명에달하며 무료 백내장 수술도 85명에게 제공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책의 추천자들: 오대환목사(예수도단), 주선예교수(장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명목사(복음선언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광민목사(홍익은 대학이다), 유관지목사(홍익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래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바성원 목사 책의 관리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예언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고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ij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0

“멕시코 민족 장로교 신학대학 교정에 서서(4)”

지난 24일(토)에는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 민족장로교회신학대학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면서 제20회 졸업식 및 필자의 학장 취임식이 있었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축하하기 위해 미국에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다. 현지 목사들, 교수들 및 졸업생들의 가족까지 합하여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필자의 꿈 중에 하나가 멕시코 및 남미의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와 특히 이슬람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뜻을 같이 하기 위해 이날 설교자로 실크 웨이브 미션 대표인 김진영 선교사를 초청했다. “연합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지난 20년간 이슬람권에서 사역했던 중보기도와 교회 개척에 대한 간증과 함께 앞으로 세계 교회들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함을 선포했다.

모인 청중들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희망을 가졌다. 진행은 멕시코 장로교단 파송으로 지역 노회장인 세살 목사가 맡았다. 대표기도는 필자와 오랜 선교 동역자인 김진환 장로(interCP총무)가 맡았다. 우리 신학교가 내일의 멕시코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학교이니만큼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세계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이들을 통해 멕시코는 물론 남미의 개신교회들이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축복하였다. 또한 엘에이 성광장교회 김요셉 목사가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를, 주의길교회 조진석 목사가 신입 학장과 학교를 위한 축사를 담당했다.

예식을 위해 재학생들이 찬양을 드렸다. 너무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청중들을 감동시켰다. 특히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을 한국어로 부를 때와 마지막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부를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쳤다.

15명의 졸업생들이 강단에 올라 한 명씩 졸업장과 매달을 받을 때 그들이 지난 4년간 흘렸던 눈물과 땀을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사역지를 향해 출발 선상에 섰다. 그간 그들을 가르쳤던 현지 교수들은 감격했고, 그들의 가족들은 한없이 기뻐했다. 이번 졸업생들은 다른 어느 때에 비해 여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교회신학대학장

러모로 우수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한 교수가 말했다. 그래서인지 졸업생들 중에는 이미 멕시코 시티, 티화나, 몬테레이 등지의 교회에서 청빙 받은 사역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멕시코 교단 안에서 그들의 지도자적 자질들을 인정받고 있음을 감사드린다.

미주에서도 한인 축하 손님들이 40여 명 참석했다. 그들에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은혜롭고 감동적인 행사였다. 멕시코 전통 악사를 마리아치라 한다. 학생들 중 마리아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마리아치를 구성했다. 바이올린, 아코디언, 기타 등으로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마리아치는 입장과 퇴장을 앞장섰고 예식을 마치고 식당에서 축하객들이 식사하는 중에 노래와 연주로 잔치의 흥을 돋우었다. 말 그대로 일품이었다. 이날 잔치 식탁은 미주 사우스베이 지역 목사회(회장: 장경일 목사)에서 도네이션을 하여 마련하였다. 감사드린다.

다음날(25일) 신학교 주일예배는 자체 졸업생 파송예배로 드렸다. 예배의 파송을 받고 15명의 졸업생들은 그들의 사역지로 향했다. 재학생들의 배웅을 받으며 사역지로 향할 때 모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4년간 몸 담았던 학교를 떠나는 석별의 정, 선후배들과 헤어지는 섭섭함, 그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의 저 눈물은 어떤 무게가 있을까 필자는 그들의 시린 마음들을 가늠해 보았다. 그렇게 졸업생들은 떠나고 재학생들은 남아 숙소로 돌아 섰다.

다시 월요일 새 주간이 시작되면서 학교는 재학생들의 복직 거림 속에 한창 교실마다 수업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은 17명이다. 저들도 4년간 이 학교에서 훈련받고 멋진 사역자들이 되어 사역지로 향할 것이다. 그날까지 이들을 열심히 정성껏 내 자식같이 돌보겠다는 각오를 해본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6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신약의 배경이 되는 헬라, 로마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국이 전쟁을 통해 땅을 정복하면 황제의 이름이나 공로를 세운 장군의 이름으로 정복한 도시들을 명명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황제는 자신의 이름을 많은 도시에 붙였습니다. 또 지역 통치자들에 의해 존경받는 황제나 장군의 이름이나 난폭한 황제나 장군의 이름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전자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도시 이름을 명명했고, 후자는 통치자나 실력자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도시 이름을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도시들 가운데 많은 도시가 황제와 장군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살았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위용을 자랑했던 디베라는 로마 2대 황제인 디벨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Caesarea Philippi)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고백적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헤르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BC 20년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도(Augustus: Caesar divi Filius Augustus)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감격한 헤롯 대왕은 이 도시를 개발하며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고, 도시를 하사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라’라고 불렀습니다.

었습니다.

정리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구약시대에는 바알 신과 판신을 믿는 장소였고, 헬라 시대에는 제우스 신전, 거룩한 염소의 무덤 신전 등 다양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각종 신상과 신전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아울러 야망으로 황제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이름을 넣은 권력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 땅에서 대표적인 헬레니즘 정신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헬레니즘이 융성했던 도시들에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과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그리고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이 좋은 예입니다. 아울러 헬레니즘이 융성한 도시는 당시 황제의 영향력과 권세를 즐겼습니다. 황제와의 관계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레니즘의 기운을 가득 품고 위용을 자랑한 도시입니다.

이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우상의 환상과 권력의 탐욕이 지배하는 세속적 욕망의 상징적 도시입니다. 신앙 고백은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서 요구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곳에 뭔가 효험이 있을 것 같은 모습으로 유혹하는 우상 앞에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탐욕과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세속의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상들의 신전들이 가득하고 권력과 탐욕이 배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고백 되는 신앙을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베드로처럼 신전 앞에서, 황제의 권세와 왕의 욕망이 출렁이는 삶의 현장에서 토해지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美 반낙태 그룹 · 복음주의권 “배럿 대법관 임명 환영”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미국 연방대법관으로 인준되면서 보수 성향 지도자들과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이를 환영했다고 27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의 반낙태단체인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의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 회장은 연방대법관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한 것을 축하하면서 “알래스카에서 플로리다에 이르기까지 ‘스튜던트포라이프’(Students for Life)와 SF-LAction은 미국인들에게 ‘프로라이프’(Pro-Life)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독려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대법관을 임명하는 의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 우리의 투어는 배럿 판사 지명을 수용하기 위해 더욱 확장됐다. 왜냐하면 배럿 판사는 사적인 의제보다 법률을 우선하는 법정의 미래를 대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오늘은 법적 영역에서 생명을 보호할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수년간의 사업을 돌아볼 때 정점에 해당한다. 배럿 판사는 앞으로 몇년간 새로운 관점을 제시 할 뛰어난 법학자”라고 평가했다.

조지아 주 게인즈빌 프리채플 교회 담임인 켄첸 프랭클린 목사 역시 CP와의 인터뷰에서 배럿 대법관에 대해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며 일곱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라며 “그의 딸을 비롯해 어린 여학생들에게 멋진 역할 모델”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상원은 공정하고, 명예롭고, 자격을 갖춘 여성이 미국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깊은 헌신과 축복받은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살고자 하며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딸들과 전국의 어린 소녀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라면서 “우리 가족과 저는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했듯이 지혜와 겸손으로 새로운 자리를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대법관이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임명식을 마치고 발코니에 함께 서 있다. ©White House/Andrea Hanks

라이브 액션(Live Action) 창립자인 릴라 로즈(Lila Rose) 회장은 배럿 대법관 임명을 축하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라이프’를 지지하는 판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면서 “배럿 대법관은 헌법 원전주의자이며 이러한 철학을 갖고 있는 판사들은 역사적으로 헌법이 낙태권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죽일 권리가 헌법에 절대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자궁 속의 인간 생명은 자궁 밖의 생명과 똑같은 인간이다. 헌법은 우리 각자가 법에 따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궁 속 태아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CP는 보도했다.

로나 맥다니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도 “배럿 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라며 “배럿 판사는 법치에 대한 충실함과 원전에 근거한 헌법 해석으로 모든 미국인에게 봉사할 것”이라고 C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Z세대, 절반은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적



©pixabay

미국의 비영리 반공산주의 단체인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 재단’이 발표한 연례 조사에서 2020년에는 2019년보다 4% 더 많은 미국인들이 사회주의를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기념 재단은 미국인 2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고, 미국의 Z세대(1997년 이후 출생)는 49%가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밀레니얼 세대(1981년생부터 1996년까지 출생)는 47%가 우호적이라고 응답했고 이는 2018년 50%, 2019년 49%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수치다.

이 보고서는 또 미국인 4명 중 1명이 자본주의 체제의 점진적인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Z세대의 12%, 밀레니얼 세대는 10%가 ‘모든 사유재산이 폐지되고 정부가 보유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정치 위원이었던 허버트 쇼어(Herbert Shore)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주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변화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괄목할 만한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 이후 많은(사회주의) 활동이 있었다”면서 “기관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쇼어에 따르면, 8년 전만 해도 DSA는 전국적으로 6000명이던 회원 수가 현재 7만 명을 넘어섰다.

쇼어는 DSA의 새 회원들 중 상당수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서민들을 돕지 않는다고 느끼는 젊은 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에 DSA가 명확한 신념이나 정책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 이사

장인 마리온 스미스(Marion Smith)는 이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재정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미스는 사회주의가 “이데올로기의 용어이며,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준 불완전하게 실천된 시스템”이며 “그들은 그것을 재정의 할 수 없다. DSA는 그 말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 대중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는 또 베네주엘라의 예를 들며, 사회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의미하며,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를 통치할 때마다 경제 붕괴와 독재적 경찰국가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더 많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구성원들이 미국의 일부 대기업들이 중국을 포함한 지구상에서 최악의 정권들과 공모해 노예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에 신앙보다 더 큰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 바르나 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서 사회주의 신념을 가진 미국인의 98%가 ‘성경적 세계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서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83%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김유진 기자

동성결혼식 주례 거부한 웨딩 대표, 법원서 ‘승소’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웨딩 회사 대표가 카운티의 성차별 금지법을 상대로 결국 승소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쿡야호 카운티에 있는 ‘코넨트 웨딩즈’ 대표인 크리스티 스톱스(Kristi Stokes)는 올해 초, 카운티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 발표된 양측 합의문에는 “스톱스의 회사는 공공 편의시설로 간주될 수 있지만, 조항은 스톱스나 (주례를 인도하는)목회자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결혼식을 열거나 거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문에는 “그들이 성실하게 지킨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기도, 설교, 서약 또는 기타 글들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톱스를 변호한 ‘자유수호동맹’의 요하네스 델폰세(Johannes Widmalm-Delphonse) 변호사는 “쿡야호 카운티의 법은 크리스티에게 법을 어기거나 자신의 신념을 거스르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불가능한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선택에 직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델폰세는 “우리는 이 필수적인 미국의 자유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성결혼 주례를 거부하고 승소한 크리스티 스톱스 ©Courtesy of ADF

크리스티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양심에 따라 생활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신속히 행동한 쿡야호 카운티를 칭찬한다”고 발표했다.

스톱스는 지난 7월 오하이오주 북부지방법원에 쿡야호 카운티법 제1501.02조(C)항으로 알려진 차별금지법을 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숙박 조항’으로도 불리는 이 카운티 법령은 대중에게 상품을 파는 장소 또는 공공숙박시설 및 오락 장소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톱스는 “나의 종교적 신념은 내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단순히 내 종교적 정체성을 사적 영역과 직업 영역별로 따로 구분해 둘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자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 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 년 3월부터 2013 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UMC, 쇠퇴 속에서도 보수적 전통주의자는 성장



지난 2013년 5월에 열린 미국 연합감리교(UMC) 총회에서 기도회를 열고 있는 목회자들. ©UMC

재정 문제와 교단 내 분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UMC)에서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 허용 문제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MC를 구성하는 가장 큰 모임인 ‘웨슬리언 연약협회’(Wesleyan Covenant Association, WCA)는 복음주의적 신념과 가치를 옹호한다. WCA 키이스 보예트(Keith Boyette) 회장은 최근 CP와의 인터뷰에서 3천개 이상의 교회가 이 협회에 가입했으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2021년 8월까지 총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예트 회장은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새롭게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세계적인 감리교 교회를 향해 힘차게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WCA는 그 교회가 아닐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전 세계의 성경적으로 건전한 웨슬리안들을 결집하려는 ‘과도기적 리더십 위원회’(Transitional Leadership Council)을 이끌고 있다. 협회는 교단을 시작하는 조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내 간 갈등으로 UMC는 올 봄 교단분립에 관한 총회가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장소 예약이 취소돼 모임이 지연됐다.

미국 UMC 회원들의 헌금이 전체 사역 예산의 99%를 차지하지만 회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주로 백인들이 교단

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인종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주의자들은 최근 UMC 선교가 대사명을 중심으로 한 영적 자유보다는 선한 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1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데일리 UMC 뉴스 피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수천 개가 넘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텍사스 맥킨과 힐드 연합감리교회 담임인 태커 헤인즈 목사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는 중요하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렌던 대학(Clarendon College) 로데오 팀의 목회자이기도 한 그는 10년간 매년 여러 명을 주님께 인도하고 세례를 받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학생들 중 일부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고, 세례를 받은 이후로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97%는 보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새로운 복음주의 웨슬리 교단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어떤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교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있다. 테네시 주 잭슨에 소재한 노스사이드 연합감리교회는 올해 투표를 통해 교단을 탈퇴하고 이름을 ‘노스사이드 교회’로 변경했다. 이 교회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본부를 둔 소규모 성결 단체인 자유감리교회(Free Methodist Church)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낙태 찬성했던 에비 존슨 “내가 틀렸다” 낙태 반대 운동 앞장서



유튜브 '포리베'가 에비 존슨의 증언을 소개했다.

유튜브 채널 ‘포리베(For Little Baby: FOLIBE)’가 20일 미국의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 출신인 ‘에비 존슨’(Abby Jhonson)의 증언을 소개했다. 그녀는 아마존 DVD 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던 ‘언플랜드’의 주인공으로, 과거 낙태를 지원하고 시술하는 단체의 간부였으나 현재 낙태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에비 존슨은 “초음파 유도 낙태 수술을 처음 참관했던 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 될 줄 몰랐다. 평소와 다른 없는 날이었다”며 “우리는 의사를 한 명 더 구하고 있었는데 그가 우리와 잘 맞는지 알아보려 했다”고 했다.

에비 존슨은 “그분은 아내와 개인 병원을 하던 분인데, 제게 새로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초음파를 보면서 낙태를 하는 방법인데 처음 들어본 방법이었다. 여성에게 제일 안전한 낙태 방법이라고 하니까 솔깃했다”고 했다.

과거의 낙태는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의 감촉만으로 수술이 진행돼 왔다. 때문에 어렵고 부작용이 매우 많은, 그리고 위험한 수술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 초음파’, ‘내진 초음파’, ‘직장 초음파’ 등 초음파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도입됐다.

에비 존슨은 “그 수술을 하는 동안 제가 할 일은 초음파 탐침을 여성의 배에 대고 있는 것이었다. 낙태 과정에 아기를 볼 수 있었다. 화면이 생생히 기억난다”며 “흡입기가 자궁으로 들어가는 걸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다”고 했다.

김신의 기자

에비 존슨은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기 전 많은 질문을 하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아기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냐는 것”이라며 “가족계획협회 매뉴얼에는 ‘아기가 고통을 느낄 수 없다’, ‘태아는 28주 전에 감각이 발달하지 않아 느낄 수 없다’고 답하게 돼 있다. 전 수백 명에게 그렇게 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초음파를 보면서 그 매뉴얼을 계속 생각했다. 그런데 아기가 점프를 했다. 좋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피하려는 것 같았다. 아기는 안에서 무언가 느꼈고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믿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말들이 다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또 어떤 거짓이 있을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에비 존슨은 “공포에 휩싸였고, 화면을 정말 보기 싫었지만 눈을 땄 수 없었다. 낙태를 한 여성이 불안하고 아파하고 있어서 위로해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다.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보고 있는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몇 분 만에 모든 게 끝났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게 여성의 선택인지, 내가 이것을 위해 8년간 싸웠던 것인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속여 왔던 수많은 여성들이 생각났다”며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낙태가 실제 아기들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내가 진실을 알았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끊임없이 생각했다”고 했다.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우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씨니킴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요임) 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치유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den 코너)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장태원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최순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장진웅 담임목사

주일 수요일 오후 2: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리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유초등부 오후 10:30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아침년예배 오후 12:30
전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차성구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2:3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월요일예배) (소매점) 오전 11:0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정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Y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도모이기가 만리부 지역 유망한 한인교회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교회 오후 7:3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어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살아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신용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우영화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조용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성경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종보기도원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a@hnsa.org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느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프랑스 대통령 “이슬람 테러… 굴복 않을 것”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니스에서 발생한 테러 현장을 방문했다. ©PSCP.TV 캡처

프랑스 니스 노트르담 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공격으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2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흉기를 든 남성이 오전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난입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과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했다.

일간 르피가르에 따르면 첫 번째 희생자는 아침 일찍 기도하기 위해 성당에 나온 70대 여성이며 성당 내 성수(聖水)대 앞에서 목이 거의 잘렸다고 한다. 범인은 또 성당 내부에서 두 번째 희생자인 성당 경비원 40대 남성 한 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세 번째 희생자인 여성은 30대로 성당에서 몇 차례 흉기에 찔린 채 건너편 카페로 피신했지만 몇 분 만에 숨졌다.

용의자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부상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마취 상태에서 아랍어로 계속 ‘신은 위대하다’(Allahu Akbar)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용의자는 튀니지 출신의 21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들어왔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9일 니스를 방문해 “이슬람 테러 공격”이라고 명시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격을 받는다면 그건 테러리즘에 굴복하지 않고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음, 가치 때문이다. 오늘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말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이번 공격에 대해 “테러리즘”이라며 “이슬람 파시스트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고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은 보도했다.

안드레 마르소(André Marceau) 니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시의 모든 교회와 경찰의 보호를 받아 폐쇄되었다”면서

“인간이라 불리는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인간으로서 느끼는 내 슬픔은 무한하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정신이 이 야만적인 행위를 이기길 바란다”고 했다.

유럽연합(European Council)도 이 사건에 대해 “우리의 공유 가치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분열보다 공동체와 종교 간 이해를 촉구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선교사 그룹 SIM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인 빈센트 웨이스터블(Vincent Wastable)은 CP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기독교인들은 이 사태를 프랑스 문명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실천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는 국가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웨이스터블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철학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면서 “프랑스 문화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다.

웨이스터블은 또 “무슬림 공동체 중 특히 급진적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며 “인본주의 철학은 이슬람에 대해 약간의 순진하게 생각했다. (인본주의 철학은) 모든 사람을 같은 수준에 두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테러 공격 때문에 서방 국가에서 이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은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체첸 출신 난민에게 참수된지 일주일 이 지난 후 일어났다. 파티는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다룬 만평을 보도 한후 극단주의 세력에 테러를 당한 잡지사 샤를리 에브도 사건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이슬람 단체의 위협을 받아왔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무슬림은 8.8%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WEA, 신임 사무총장에 토마스 쉬르마허 박사 선임

독일 신학자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macher) 박사가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고 29일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그는 필리핀의 에프라임 텐데로(Efraim Tendero) 주교의 뒤를 이어 내년 3월부터 새 직책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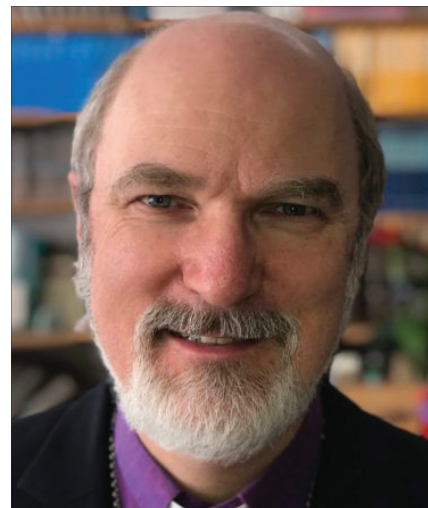
독일인인 쉬르마허 박사는 WEA에서 신학적 관심사를 위한 협력 사무총장으로 섬기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전에 종교자유위원회 회원으로 섬겼으며 현재 WEA 신학위원장이며 WEA 인권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협의회장인 굿윌 샤나(Goodwill Shana) 박사는 WEA 사무총장 임명 소식을 알리는 서한에서 “쉬르마허 박사는 WEA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세계 기독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데 헌신했다”면서 “그는 WEA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재능 있는 인물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토마스 박사가 삶과 역사의 이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큰 비전을 갖고 WEA를 이끌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텐데로 주교는 지난 2015년부터 WEA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쉬르마허 박사의 임명에 대해 “전 세계적인 복음주의 단체를 미래로 이끌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 년 동안 WEA 수석 리더십 팀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세계적인 사역에 필요한 성격, 신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하는 은사와 능력을 그에게서 보았다”라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나라에



토마스 쉬르마허 박사

전하고 개인, 가족,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힘을 받아 WEA를 인도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쉬르마허 박사는 “임명 소식에 겸손해진다”면서 “오랫 동안 리더십의 일원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WEA는 내 집과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모든 학문적·사회 정치적 참여 외에, 제 신앙의 중심은 항상 각 개인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힘이였다”면서 “저는 WEA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한다. 수백만 명의 신자들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과 전임자들의 큰 노고 위에서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전함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WEA 이슬람 문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본 앤 루벤 대학 이슬람 연구 교수인 크리스틴 쉬르마허 박사와 결혼했다.

이미경 기자

벨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ridg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난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동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헌양찬양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MP예배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수요일 새벽예배 오전 10:00, 2부 새벽예배 오후 1:00
수요일 성경공부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158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5-6887 (F) (818) 887-58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교동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동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동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2부예배(EM) 오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제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n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m.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310) 618-2222



이재철 목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이재철 목사(100주년기념교회 전 담임)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잘잘법’(잘 믿고 잘 사는 법) 영상에서 ‘코로나 시대에 흔들리는 신앙, 그러나 길은 있다!’라는 주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목사는 “개신교인 설문조사에서 3분의 1이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면 예배가 재개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와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경험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예배당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새 시대를 담기가 꽤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예배당이 없는 젊은 목회자들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예배당을 초월함으로 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의 특징을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비대면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이 사회구조, 사회 현상을 변혁하고 극복하지 않는 한 제2, 제3, 제4의 코로나19는 언제든 지 인간을 덮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 각 분야가 뉴노멀에 맞는 삶을 영유하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혁신해가는 과정 중인데, 교회만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기가 아니라 예배 본질의 회복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먼저는 뉴 노멀의 사회가 일상화될 것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당을 탈피한 영적 예배의 묘미, 그 기쁨을 맛봤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예배당 문제”라며 “예배당 건축을 위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동원하기 위해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다. 예배당을 많이 지음으로 복음화한 공도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절대시하면서 끼쳐 온



이재철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유튜브 잘잘법 채널 영상 캡처

후유증도 참 많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반면에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된다면 플랫폼만 있으면 된다.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배를 편집하여 올라가는 영상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온라인 교회가 될 수 있는가”라며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기능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제일 정점에는 말씀(케리그마)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헌신과 봉사(디아코니아)의 수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교제(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 온라인으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면서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그 멤버들을 묶어서 훈련시켜 그들로 하여금 헌신된 삶을 살게 하고 서로 교제, 교통하면서 밀어주고 끌어주게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목사는 “교회는 특정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라며 “나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그건 나쁜 거지만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있는 처지에서 영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조금도 금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이정훈 교수 “이재철 목사 메시지 정말 위험”



이정훈 교수가 최근 코로나 사태에서의 ‘온라인 예배’와 관련, 이재철 목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정훈 교수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재철 목사(백주년기념교회 전 담임)의 발언에 대해 유튜브 영상에서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라”며 정면 비판했던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연 설명을 했다.

이 교수는 “먼저 유튜브로 공개한 이재철 목사님 관련 제 주장의 의도를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린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먼저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은 1부와 2부로 편집되어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다. 1부분 보신 분들이 제 영상에 대해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다”며 “먼저 1부의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교회 건축(교회건물)이 만약의 근원인 것처럼 설명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교수는 “물론 건축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건축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이재철 목사가님이 비판하셨다면, 역설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건축이 만약의 근원인 양 과장하시다가 본질을 놓치셨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라며 “목사님이 사용하신 거의 모든 비유들이 교회건축을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중세 때 지어진 성을 근대적 무기인 대포가 부서버려 무용지물이 된 비유로부터 ‘대포를 쏘셨다’는 제목을 가져오신 것도 교회건물에 대한 집요한 패착으로 보인다”며 “중세 때는 방어를 위해 성이 필요했다”고 했다.

그는 “2부 영상에 등장한 과거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의 예배 장면을 목사님은 선구적인 온라인 예배의 원조격으로 설명하셨다”며 “성도들이 늘어나자 인근 빌딩을 임차하고 노랑진 공무원학원처럼 성도들이 밀집해서 본당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TV로 보는 형태는 제 식견으로는 선구적인 온라인 예배의 원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 교수는 “주변 건물을 임차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마음먹고 지적하자면 건축만큼이나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목사님과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 방식에 동의 하셨다는 것이다. 건축에 동의했던 분들도 목사님의 지적처럼 모두 부패한 ساختمان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0주년기념교회도 건물이 있었고, 늘어나는 성도들을 위해 건축을 하지 않고 인근 빌딩을 임차해서 사용한 것이 또한 우월감의 근거가 되거나 표준이 될 수도 없다. 그냥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건축한 교회는 모두 타락한 ساختمان들의 집합소로 볼 수도 없다. 각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지적하신 타락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 개혁하는 것이지 교회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있지 않다”며 “모든 교회건물이 철거되고, 온라인에서 소수가 줌으로만 모여도 ساختمان이 활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EM 예배
주일3부예배
KM청년예배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2:00

세백예배(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Sunday Services: 9AM, 11AM, and 2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금요찬양예배
새벽예배

오후 12:20
오후 8시:30
(월-금) 오전 5:30

만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현대교회청년예배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30
오전 2:00

금요찬양
정예인예배
영어장년부
새벽기도회

오전 7:30
오전 11:30
오전 9:30, 11:30
오전 5:30(월-금)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토요새벽예배
대학청년예배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5:30(월-토)
오전 6:00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유, 초등부예배
설거주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5:30(월-토)
오전 5:30(월-토)
오전 5:30(월-토)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영어예배(EO)
청년예배

오전 8:00
오전 9:30
오전 11:20
오전 9:30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교회학교

오전 11:00
오전 8:00
오전 5:30(월-토)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영으로 영혼을 사랑해 공회로 세우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복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ifgc.com

주일예배
수요찬양예배
주일학교

오전 10:30
오후 8:00
오전 10:30

세백기도회(화-금)
(토요일)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2부예배
수요성령집회
한국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오후 8:00
오전 1:30

교육부 예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하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11:00
오전 7:00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2부예배(KM)
교육부예배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9:00am
주일 11:00am
주일 11:00am

금요찬양예배
(매월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유년부예배
중고등부예배

오전 9:45
오전 11:00
오전 11:00
주일 오전 11:00

목요제네예배
새벽기도회
셀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오전 7시
오전 6:00(화-금)
오전 9:30(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

오전 11:30
오후 8:00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일예배
Youth/ College

오전 8:00
오전 11:00
오전 7:30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어린이예배
찬양예배
중보기도

오전 11:30
오전 11:30
오전 7:00(주)
오전 9:00(목)

오전 11:30
오전 9:15, 오전 11:30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2부예배
중고등부 예배
EM예배

오전 8:45
오전 11:00
오전 11:00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청년예배

오전 7:15
오전 9:15
오전 11:30
오전 2:00

성인 영어예배
일본어 예배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오전 1:30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English Ministry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11:30
오전 11:00

청년부
Hispanic Service
수요 예배

오전 11:00
오전 9:30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mooll.church

주일예배 1부
2부
3부
4부

오전 7:30
오전 9:15
오전 11:30
오후 2:00

수요일예배
중고등부
한아부
KM대학청년부

오전 7:00
오전 9:15, 11:30
오전 11:30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30
오전 11:30

EM 예배
새벽 예배
FAME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전 7:30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2부예배
3부찬양
수요일예배

오전 8:00
오전 9:45
오전 11:30
오전 7:30

금요찬양기도회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7:30
오전 9:15, 오전 11:30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4부예배

오전 7:30
오전 9:20
오전 11:30
오후 2:00

새벽예배
금요성령예배

오전 5:30
오전 06:00
오후 0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2부예배
3부예배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7:30
오전 10:00
오전 11:45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음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새벽기도회

오후 1:30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생각의 종류에 따라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작은 생각은 작은 결과를 낳고, 큰 생각은 큰 결과를 낳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결과를 낳고, 추한 생각은 추한 결과를 낳습니다.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우리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 생각의 결과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우리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은 씨앗처럼 정직합니다.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을 바꿈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선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삽니다. 수많은 생각 속에는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 파괴적인 생각, 추한 생각, 불평하는 생각, 그리고 폭력적인 생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생각 속에는 좋은 생각, 밝은 생각, 누군가를 사랑하는 생각, 사람을 살리는 생각, 거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온유한 생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들을 바라보며 그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권면합니다(고후 10:5). 바울은



강 준 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나쁜 생각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시키고, 좋은 생각은 행동에 옮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무엇에든지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빌 4:8).

좋은 생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생각 없이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마귀가 뿌리는 생각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귀한 삶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생각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반면에 인간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을 다스리며 삽니다. 이 점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한 때 깊이 생각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근육이 발달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훈련하듯이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의 근육은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순간을 넘길 때 강해집니다. 생각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통합하고,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생각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고 연합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기까지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산고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낳은 아이를 가슴에 품는 순간, 엄마는 모든 고통을 잊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을 출산한 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그와 같이 두 생각, 또는 다양한 생각이 관련을 맺을 때 놀라운 생각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아 하!”라는 탄성을 외치는 순간입니다. 그 때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히 3:1).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부디 생각을 훈련하고 생각의 근육을 키움으로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교도의 정치적 유산을 생각하며

11월 첫째 주는 대통령과 공직자에 대한 투표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는 대통령을 시민의 결정으로 선출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은 종교개혁자들, 특히 영국 청교도의 공헌에 힘입은 바 큼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시작된 것은 1550년에서 1700년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강력한 왕 헨리 8세와 튜더 가문의 왕들은 왕권신수설을 신봉하였습니다. 헨리 8세가 1534년에 수장령을 내림으로 영국의 왕은 국가와 교회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통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당시의 청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존재의 위계질서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세와 그 이전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사제, 왕과 귀족 그리고 평민은 하늘이 내린 위계질서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는 이러한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 아래서 모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인제사장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전의 위계질서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래서 평등한 사람들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존 칼빈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삶의 영역을 세우시고 그 영역의 지도자를 통하여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더 나아가 왕이 악을 행하면 그 폭군을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마지막으로 튜더왕조(1485-1603)가 끝나고, 이후 스튜어트 왕조(1603-1707)가 들어섭니다. 스튜어트 왕조 때에 청교도들은 민권을 신장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확장시킵니다. 영국 사회는 귀족 중심의 왕당파와 다른 한편으로는 하부 귀족인 젠트리(gentry)를 중심으로 중산층



민 중 기 목사
충현선교회

과 지주들로 구성된 의회파를 중심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중 가장 민주적인 사람들이 젠트리였고, 이 젠트리 출신의 청교도 목사들은 가장 개혁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당파와 의회파의 갈등은 결국 내전이 이르렀고, 청교도 혁명(1642-1651)이라고 불린 이 내전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찰스 1세, 2세의 군대를 격파한 올리버 크롬웰(1599-1658)의 영향력은 1660년까지 11년 동안의 왕권 정치와 공화국 체제를 이룹니다. 이 기간 동안 청교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확정짓습니다. 청교도 내부 분열은 크롬웰의 독재와 죽음 이후 찰스 2세의 왕정복고로 끝났지만, 공화제의 이상은 그대로 남아 전제적인 왕권을 제한하는 명예혁명(1688)과 권리장전(1689)이라는 문서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때에 생명을 걸고 신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이들은 1776년 미국을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독립을 선포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왕이 없는 국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청교도의 유산은 세계 속에 새로운 정치형태를 이루어 냈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견고한 기반입니다.

■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성화과정에 대한 신학적 분석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 (repentance)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회심” (conversion)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회심의 사건은 회개와 믿음 (faith)으로 구성된다.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게 되며 (regeneration), 성령의 인치심 (sealing of the Holy Spirit)과 내주하심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이 있게 되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양자됨 (adoption)과 칭의 (justification)와 확정적 성화 (definitive sanctification)의 놀라운 사건들이 함께 일어난다.

이후 성도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과정 (process of spiritual growth) 즉 점진적으로 그리고 실재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되

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점진적, 실재적 성화” (progressive and practical sanctification)라고 부른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도는 매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첫째, 성화의 과정은 평생 동안 지속됨을 기억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성화의 도상에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엡 4:13)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보다 상대적으로 성화에 있어서 진보한 상태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도의 성화과정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거룩한 변화의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성화의 과정은 영적 상승 (spiritual ups)와 영적 하강 (spiritual downs)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는 때로는 마치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것과 같은 영적 극치의 경험을 하지만, 때로는 그랜드캐년의 깊은 골짜기에 내려 쏘듯한 것 같은 영적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심각한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또 영적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영적 극치를 경험한 실례는 사도 바울이 소위 삼충전을 경험한 사건이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삼충전을 경험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인 상승의 경험을 하게 된다.

셋째, 성화의 과정은 죽임 (mortification)과 살림 (vivification)의 과정임을 기억하라.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와 죄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다. 죄와 죄의 소욕을 죽이고, 저 복종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엡 6:17).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정욕을 제거하는 영적 메스, 수술칼이다. 또한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이 주시는 소욕을 따라 살아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잔존하는 죄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싸움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힘입어 성령을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넷째, 성화의 과정은 벗음 (putting off the old nature)과 입을

(putting on the new nature)의 과정을 기억하라. 벗음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의 소욕, 생각, 태도, 말, 행동을 점진적으로 벗어가는 것이다. 입음은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소욕, 성령의 생각, 거룩한 태도와 말과 행동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입어가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는 죽음의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죄로 물든 몸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된다. 그것이 “영화” (glorification)의 사건이다. 물론 이 때의 영화는 우리 영혼만의 영화이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하여 영화된다.

다섯째,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심각한 백 슬라이딩 (backsliding) 즉 영적 타락 (spiritual lapse)을 경험하게 되며, 때로는 영적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여기서 심각한 백 슬라이딩의 실례로 가장 좋은 것은 다윗의 타락일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놀라운 칭찬을 들었지만, 그의 전성기가 왔을 때 자기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인 밋세바를 강제로 취하고, 우리아까지도 전장에 나아가서 살해되도록 음모를 꾸몄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다. 다윗의 영적 타락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심각한 백 슬라이딩 외에도 성도들은 성화의 과정에서 심각한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를 경험하고, 수개월 심지어 수년 동안 영적 방황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묵상 그리고 성경적인 상담이나 멘토링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성화과정은 매우 드라마틱한 과정이다. 롤러 코스터와 같이 높이 상승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반복한다. 성도의 성화과정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인 청교도 작가 존 번연 (John Bunyan, 1628-1688)의 [천로역정] (The Pilgrim's Progress)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기독교 고전이 되었다. 천로역정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성화의 과정을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작품이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 온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의 과정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번 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성화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되어 구원받은 결과요 열매이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지체들이 이 진리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성욱 박사
美 덴버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물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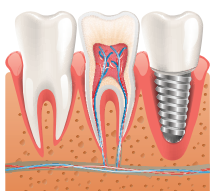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료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1달
7~25lbs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염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위장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자궁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발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군중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배배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50
한달분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베드로전서 4:12-19



서울성민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약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되 말려니와 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크리라 17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

1. 성도의 참된 즐거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왜 즐거움이 됩니까? 쉽게 설명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후에 예수님의 남은 뜻인,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죄인들에게 수모와 행패와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 다. 또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 한 마디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신적작정에 의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희생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예수님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님을 약속대로 살리셨습니다. 그것도 생명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더불어 세계를 지배하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 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따르는 의무를 감당하고 철저한 사명감으로 무

장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원히 같이 살 때에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회개한 일이 없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육신의 본능과 그 욕구를 따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 역시 누릴 수가 없습니다.

2. 성도가 당하는 불시험의 이유: 연단
1절에“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19절에도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할 것이고 이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우리의 영적소속에 대한 마귀의 핍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 속해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내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불시험”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불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첫 순교자로 일곱 집사님 중에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교회에 박해를 가합니다. 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할 때에 불기운이 연기와 함께 솟음을 막아오지만 그들은 마지막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송을 불렀습니다. 순교자들은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 천국과 내세 소망을 임체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불시험입니다. 그런 믿음의 순교자들이 우리의 신앙선배가 되셨기에 복음은 땅 끝까지 힘 있게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런 불시험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온전한 자격을 갖추어 지도록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보시

기에 아주 순결하고 온전한 영적인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불로 시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니엘 3장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왕궁의 교육을 받고는 왕의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질투로 인해 그들은 위기에 빠집니다. 두라평지에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기로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신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음의 유대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박해로 인해 노예로 신음하고 멸시와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사건은 신앙의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생명사게로 덮어서 불꽃이 그들을 그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통치자 되심을 이방인 눈부갓네살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3. 성도의 복 -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러므로 13절에“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무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훗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복락에 들어갈 때에 영원한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다 쓰실 때까지 살리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15절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괜히 참여하다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약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얻어터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핍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 값에 대한 당연한 보응입니다. 이런 고난은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찌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 신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자원하는 열심을 가지고 고백해야 합니다.“이 목숨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주님 마음대로 쓰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우리의 사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성숙된 성도, 의리와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위성TV 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310 LA 미주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2) 은 : **항균, 항취 효과**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 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생명윤리

건실한 가정윤리 강조, 생명 인위 제거는 범죄
영아 유기나 낙태뿐 아니라 산아 제한도 반대
당대 난잡한 동성애나 성행위도, 분명히 반대
버려진 아이들 양육하고, 격투기와 전쟁 반대

시작하면서

낙태(墮胎) 문제는 우리 시대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에서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7:2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개정을 권고했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 관련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하고 자동 폐기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2주를 인공 임신중절 가능 기간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10월 7일, 낙태죄 자체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4주까지 낙태 허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아도 인간 생명이라는 의학적 견지에서 볼 때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 정책위원회는 주수(週數)에 따른 인공 임신중절 허용이 아닌 낙태죄 전면 폐지를 권고했다고 한다. 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도 낙태는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완전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는 낙태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살인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반대하고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상호 대립적 가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낙태죄는 현재 한국 사회의 심각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낙태 혹은 낙태죄에 대한 의학적 혹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려는 것이 아니라, 낙태가 허용되던 헬라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대응했을까? 이 점에 대한 역사적 사례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

1. 낙태하는 사회

낙태는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법적 규제 없이 자행되던 일상사였다. 이 시기 낙태는 이교도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는데, 가난한 이들보다 부유한 계층이 더욱 빈번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낙태를 통한 가족계획을 권장한 바 있는데, 이런 전통은 그 이후 헬라 로

마 사회에 영향을 주었고, 로마의 법은 태아를 인간(a human being)으로 보지 않고 내장(內臟)의 물질(material viscera)로 간주했다.

그래서 낙태는 상당한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규제되지 않는 낙태는 결과적으로 성적 무질서와 출산율을 크게 저하시켰는데, 이 낙태가 로마 사회 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낙태 방법은 다양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치사량에 약간 밀도는 독약을 복용하여 유산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또 태아를 죽이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독극물을 자궁내로 주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어, 태아와 산모 양자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망한 태아를 산모의 체외로 제거하지 못해 산모와 태아가 동반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다.

또 다른 낙태법은 기구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긴 바늘과 갈고리 혹은 칼을 동원하여 태아를 토막 내 자궁을 통해 제거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낙태법이 산모에게도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낙태가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낙태가 행해졌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째는 불륜에 의한 성행위 은폐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였다.

또 경제적 이유나 재산 상속에 있어 재산의 분산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 부유한 이들은 재산을 여러 후손들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고, 가난한 이들은 대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웠기에 낙태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경우 낙태를 원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가장인 남성이었다. 로마법은 가장인 남성(paterfamilias)이 집안 여성에게 낙태를 명할 권리를 포함한 집안 식구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런 권리를 파트리아 프로테스타스(patria protestas)라고 부른다. 사실상 가장인 아버지는 노예나 부인이나 자식을 죽이거나 신체를 훼손하거나 물건이나 소유물처럼 판매할 수 있었다.

일례로 도미티안(Domitian) 황제는 조카 줄리아(Julia)를 강간하여 임신하게 했는데 줄리아가 낙태를 명했고, 낙태 중 사망했다. 남편에게 신생아의 유기를 명할 권한을 허용한 사회에서, 아내나 정부(情婦)의 낙태를 명할 권리가 남편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못 된다.

이런 이유 외에도 부유한 여성들은 성적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했다. 우리 사회와 큰 차이가 없다.



제3회 인간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UCC 공모전 대상 스틸컷. ©새생명지원센터

초기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했던 3가지 이유

1. 태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생명이라는 점
2.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점
3. 낙태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점

2. 초기 기독교회의 대응

이런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은 영아 살해는 물론이지만, 낙태는 명백한 살인으로 보아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특히 3가지 관점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로 태아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생명이라는 점(시 139:13-16), 둘째로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점, 셋째, 낙태 행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회는 인위적 생명 제거 행위를 거부했다.

초기 기독교 문헌 중 낙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대표적인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 두 가지 문서가 디다케(Διδαχή, Didache)와 바나바 서신(The Epistle of Barnabas)이다.

디다케는 흔히 ‘열두 사도가 이방인에게 전한 주의 가르침’ 혹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Doctrina Duodecim Apostolorum)’으로 번역되는데, 이 책 서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도덕규범을 ‘두 길(Two ways)’이라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길’이란 생명의 길(the way of life or light)과 사망의 길(the way of death or darkness)을 의미하는데, 이 두 길이라는 상호 대조 개념은 그 이후 기독교적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 ‘생명의 길’을 말하는 디다케 제2장 2항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계명은 다음과 같다. 그대는 살인하지 말라. 그대는 간음하지 말라. 그대는 소년을 탐하지 말라. 그대는 음행을 피하라. 그대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대는 주술 행위를 하지 말라. 그대는 낙태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영아도 죽이지 말라. 그대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나바 서신 또한 디다케와 같은 방식으로 두 길을 제시하는데, 디다케보다 신학적이고 할 수 있다. 후일 아타나시우스는, 디다케는 초신자나 세례 준비자들을 위한 훈련 교범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신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낙태 행위에 대한 거부를 가르쳐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디다케와 바나바 서신에서 말하는 ‘사망의 길’은 영아 살인과 하나님 솜씨(workmanship of God)의 파괴자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또 2세기 변증가 아테나고라스(Athenagoras)는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청원’ 35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낙태를 위해 악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서는 낙태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궁 속의 태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신생아를 유기하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내다버리는 이들은 유아 살해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낙태나 영아 유기를 죄악시했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이런 행위를 일삼는 이교도를 비판했다. 2세기 말 미니키우스 펠릭스(Minucius Felix)는 자신의 ‘변증서(Octavius)’에서 이렇게 썼다.

“당신들은 한때 태어난 자식들을 들짐승과 새들에게 유기했으며 아이들을 목을 조르거나 내던져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당신들 중 어떤 여성은 악물을 마심으로써 복중에 있는 후일의 인간의 근원을 멸절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출산 전 존속 살해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당신들의 신들(gods)로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사트루누스(Saturn)는 그의 자식들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잡아먹은 것입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유아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낙태와 유아 유기를 금지했다. 이탈리아 역사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인드로 몬타넬리(Indro Montanelli)는 이렇게 썼다.

“낙태와 유아 살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회 풍토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미에서 이것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고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기독교리에 따라 교육하도록 당부하고 있었다.”

이런 점이 기독교회가 보여준 생명 존중사상이자 생명 윤리였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출산율은 이교 사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었다.

미니키우스 펠릭스는 자신의 변증사에서 “날마다 우리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다”며 그것은 “우리의 건실한 생활양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회는 혼인을 신성시했을 뿐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상급으로(시 127:3) 이해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성행위는 일차적으로 자녀출산을 위한 것이었고, 출산과 육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이런 가르침을 따랐던 초기 기독

교는 생명 존중 사상을 보여 준 것이다. 이와 같은 초기 기독교의 낙태 반대와 그 가르침은 그 이후 시기까지 변함없이 중시되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Chrysostom, c. 347-407)이나 어거스틴(Augustine, 354-430) 같은 4세기 교부들도 낙태를 정죄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 어거스틴 만큼 강하게 반대하고 어거스틴의 가르침만큼 비중 있게 영향을 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결혼과 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녀 출산이라고 보았고, 쾌락을 위한 성행위를 반대했다. 성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

3. 종합과 정리

정리하면, 초기 기독교는 영아 유기나 낙태뿐 아니라 산아 제한도 반대했다. 구약에서 오난의 체외 사정이 정죄되었듯(창 38:8-10), 의도적 이거나 인위적인 산아 제한은 부당한 것으로 인식했다.

교부들도 그렇게 가르쳤다. 예컨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번식을 위해 하나님이 고안한 정자를 헛되이 사정하면 안 되고 파괴하거나 허비해서도 안 된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스토아 학파의 경우처럼 결혼에서의 성생활을 오직 출산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도리어 유대적 전통을 따라 결혼생활에서의 부부간의 의무와 즐거움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와서 변화를 보여 주었는데, 결혼 주된 목적, 그리고 성행위의 유일한 목적은 출산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변화는 당시의 편만한 낙태 관행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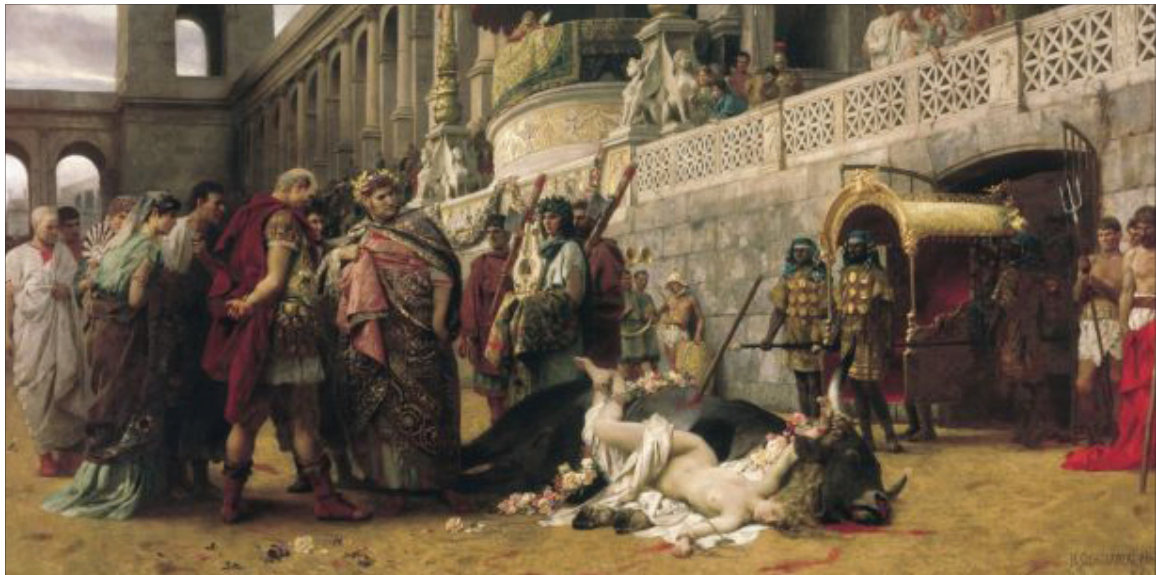
부연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동성애(롬1:26), 항문성교, 구강섹스 등 당시 난잡한 동성애나 성행위도 분명하게 반대했다. 초기 기독교 문서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 공동체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예컨대 바나바 서신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너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처럼 더러움을 위하여 입으로 불의를 행하는 남자와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의 입으로 불의를 행하는 부정한 여인과 연합하지 말라(바나바 서신, 10).”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독교는 그 시대의 풍조에 맞서 영아 유기나 살해, 낙태, 동성애 등을 반대하면서 건실한 가정윤리를 강조하였고, 유아나 영아, 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인간 생명의 인위적 제거는 범죄라는 점을 가르치고,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보여준 생명윤리였다. 이 글에서는 소개하지 못했지만, 초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검투사들의 격투기를 반대한 것이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주의(pacifism)를 지행한 것도 생명 윤리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상규 박사(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네로의 기독교 박해장면을 그린 그림. 기독교인들은 낙태라는 로마 제국의 생명 경시 사상을 거부했다.



찾아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0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중인
현 프로그램 활성화와 확장을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향상에 기여해 주실
비영리 봉사단체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서 다운로드와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openstewardship.com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Open Stewardship Program

접수기간 2020년 10월 15일 - 11월 25일

수혜단체 발표 2021년 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내실 곳 Open Stewardship Foundation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 100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7